

# “사라져가는 탄광과 광부들의 애환 기록할 것”

화순서 탄광사진전 여는 광부 작가 전제훈씨

### 노출 꺼리던 동료들 역사 기록에 협조... 10만여점 촬영 내달 8일까지 소아르갤러리... 화순 탄광 작업 제안 받아

검은 재를 뒤집어 쓴 광부들의 얼굴, 캄캄한 경도를 비추는 불빛. 전제훈(60) 작가는 수십년 전부터 탄광과 광부들을 앵글에 담아왔다. 그 자신, 경내 화약관리사로 광업소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만난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초창기, 광부들은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얼굴이 '선·후배 광부', '전국 광부들'의 모습을 알게됐고, 동료인 전 작가는 그제서야 그들의 얼굴을 담을 수 있었다. 남편, 아빠가 일하는 사진을 본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가족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했다.

한때 전국에 300여곳에 달하던 탄광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겨우 4곳이다. 화순의 화순광업소, 태백의 장성광업소, 삼척 도계광업소와 경동 삼척광업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탄광의 마지막 세대'를 자처하는 다큐멘터리 작가 전제훈(61)이 카메라를 들고 광부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터인 탄광의 풍경을 집요하게 촬영하는

이유는 사라질 지 모르는 역사를 기억해두고 싶기 때문이다.

전제훈 특별초대전 '증산보국(增産報國)' 전이 오는 12월 8일까지 화순 소아르갤러리(화순읍 화보로 4439-10)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최근 10여년간 강원도 지역 탄광을 주로 촬영한 작품 40여점이 나왔다. 그의 사진은 일반인들이 찍은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오랫동안 탄광생활을 함께하며 '속살'을 찍었기 때문이다.

전시 제목 '증산보국'은 중화상 때 형이 일하던 탄광에서 만난 글귀다. 정부에서 석탄생산을 독려하던 1970-80년대 모든 탄광 정문에 세워진 현수막에 적힌 글귀가 사실상, 고강도 노동 착취 슬로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화순 역시 1904년 화순 출신 박현경에 의해 동면 북암리 일대 선전이 확인된 이후부터 채탄을 시작한 대표적 탄광 지역이어서 이번 전시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전시에는 광부와 가족들, 일반 관람객들



화순에서 사진전을 여는 광부 사진작가 전제훈씨.

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시회에 오신 퇴직 광부들은 작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울컥해 하기도 하구요. 현직 광부들은 자신이 일하는 탄광과 다른 곳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더군요. 어떤

점에서는 기술교류 마당도 되는 것 같아요."

전 작가는 전시장을 방문한 화순탄광 관계자들에게서 화순탄광을 기록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 역시 곧 사라질 화순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했고, 동료로서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그의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건넸다.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대학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한 뒤 1983년 광업소에 취직 한 그는 취미로 사진을 찍으며 광부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그 때는 전문적인 다큐 사진이라기 보다는 공모전 출품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다 '기록사진'으로 '제대'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12년 전으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은 10만점에 달한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석탄 산업은 이제 몇년 남지 않았고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남기는 작업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탄광에서 수십년을 보냈고, 그곳이 바로 삶의 현장이었습니니다. 석탄 산업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록자로서 의무감, 사명감이 확실 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산업사회와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던 그 현장과 그 때의 사람들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경과 보령을 거쳐 강원도 철암탄 광역사촌(12월12일-31일)에서 열리며 내년 상반기에 정선 삼탄아트마인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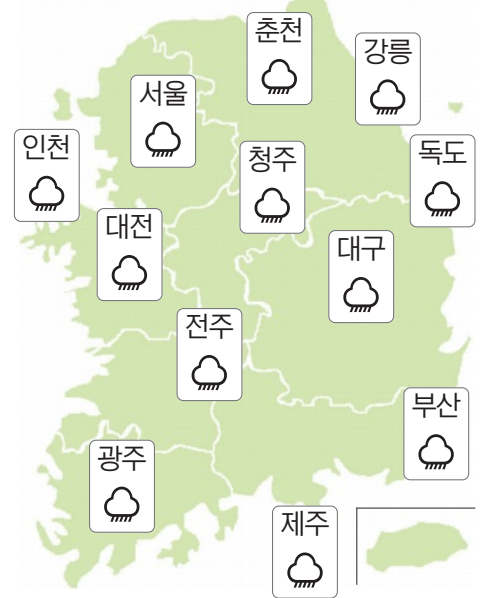
해돋이	07:21	달뜨기	02:16
해질	17:21	달짐	14:42

## 우산 챙기세요

저기압 영향으로 비 내리겠다.

광주	비	9/12	보성	비	6/13
목포	비	11/13	순천	비	7/14
여수	비	11/15	영광	비	10/12
나주	비	8/12	진도	비	10/13
완도	비	11/14	전주	비	9/12
구례	비	5/13	군산	비	9/11
강진	비	8/14	남원	비	6/12
해남	비	9/13	축산도	비	12/13
장성	비	7/12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2.0~3.0	2.0~3.5
	면바다(북)	2.0~4.0	3.0~5.0
	면바다(남)	2.0~4.0	3.0~5.0
남해 서부	앞바다	1.5~3.0	2.0~3.0
	면바다(서)	2.0~4.0	3.0~5.0
	면바다(동)	2.0~4.0	2.0~4.0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36	10:22
		16:02	22:45
여수		11:42	05:50
		--:--	17:58

##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좋음

## ◇ 주간 날씨

12/1(수)	2(목)	3(금)
☁	☁	☁
2/6	0/9	4/11
4(토)	5(일)	6(월)
☀	☀	☀
1/10	0/11	1/12

## 전남소방 '119섬나희' 취약계층에 이불 선물



전남소방(본부장 마재운) 직장동호회 '119섬나희'가 최근 취약계층 30가구에 대해 18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30채를 전달했다. <전남소방 119섬나희 제공>

## 전남대병원 2021 안전혁신대상 우수상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사진 가운데)이 최근 '2021년 안전혁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전혁신대상은 (주)한국혁신연구원과 (사)한국서비스경영학회 공동 주관으로 기관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경영시스템·안전문화·안전행동에 대한 안전체질도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남대병원 제공>

## 광주대, 국제미용경진대회 대상·개인상 휩쓸어

### 뷰티미용학과 K-뷰티 인재 양성 노력 '성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국제미용경진대회 단체부문 대상에 이어 개인상까지 휩쓸며 K-뷰티를 선도하고 있다. 뷰티미용학과는 최근 KOBEA(한국뷰티교육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후원한 '2021 KOBEA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

트컴페스타'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에서도 국회의원상 3명, 의회장상 1명, 시장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명, 금상 16명, 은상 11명, 동상 2명 등 총 38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야립학술상 수상

목포대학교 신순호(사진) 명예교수가 최근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도시행정학회 2021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야립학술상을 수상했다. 야립학술상은 학술 분야에 지대한 성과가 있고 학술 및 관련 분야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순호 교수는 공군대학 교관과 청주대, 목포대 교수로 40여 년간 한국도시행정학회장과 한국지역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연구업적으로는 도서 지역 주민과 사회를 비롯해 7권의 저서, 130여 편의 논문과 70여 편의 연구보고서를 저술한 바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ARS로 참여 060-703-1100.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연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정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합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

- 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모집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양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

- 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